



전남도 '갯벌낙지 구하기'

무분별 남획에 개체수 급감...4년새 생산량 1441t 줄어 수산과학원, 새끼낙지 방류·종묘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낙지 생산량은 지난 2010년 4425t(전국 생산량 6954t의 63.63%)에서 지난해 2984t(전국 5061t의 58.96%)으로 무려 1441t이 감소했다. 전국 생산량에서 전남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남에서의 어획량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남의 '세발낙지' 인기가 높아지면서 낙지가 성체가 된 뒤 알을 낳기 전에 포획돼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 육조에서 인공교점시킨 뒤 2개월 뒤에 200여 마리의 알이 산란한 알을 3개월만에 부화시켜 지난해 10월 1만 2000여 마리의 새끼 낙지를 방류했다. 올해는 알컷 703마리, 수컷 560마리 등 모두 1263마리를 구입해 2만 마리를 방류할 방침이다.

2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10만 마리 종묘를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낙지어장을 조성해 자원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 연구소의 복안이다.

김윤설 국제갯벌연구소 연구사는 "교점한 어미 낙지 중 250여 마리가 6월부터 산란, 지난 9월 말부터 부화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지는 상호 공격이 심한 품종으로 부화 후 최소 3일 이내 방류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낙지는 모두 같은 종(種)이지만 갯벌 낙지가 주낙이나 통발로 잡는 바다 낙지보다 작은 이유는 먹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연구사의 설명이다. 연구소 측은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끼 낙지 방류를 통해 진도 갯벌에서 낙지가 가장 잘 자란다는 사실도 부수적으로 밝혀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쫄깃한 맛에 영양까지 풍부한 갯벌낙지가 높은 인기 탓에 남획되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보다 못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갯벌연구소가 인공부화한 새끼 낙지를 신안, 무안, 진도 갯벌에 방류하는 등 인간힘을 쓰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갯벌

'노벨평화상' 말랄라·사티아르티 공동

아동 권익 운동...17세 말랄라, 최연소 수상

올해 노벨평화상은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17)와 인도의 아동 노동 근절 및 교육권 보장 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60)가 공동으로 받게 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억압에 반대하고 모든 어린이의 교육권을 위해 투쟁했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탈레반 피격소녀'로 알려진 말랄라는 11살 때부터 영국 BBC 방송 블로그를 통해 파키스탄탈레반(TTP)의 만행을 고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 2012년 10월9일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학교 도중 머리에 총을 맞았다. 이후 영국에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파키스탄의 여성 교육권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사티아르티

말랄라는 계속되는 탈레반의 살해 위협에도 전 세계에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인도의 아동운동가 사티아르티에 대해서는 간디의 비폭력주의 전통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동들을 착취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여러 형태로 평화적 시위를 이끌어 위대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해남과 진도 울돌목 일원에서 개막해 12일 폐막한 '2014 명랑대첩축제'에서 임진왜란 당시 명랑대첩이 재연돼 이목을 끌었다. 이번 재연에는 5~10t급 선박 100척과 주민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판옥선과 왜선으로 치장하고 옥곽도 1만5000발이나 사용됐다. <광주·전남공동사진기자단>

무기계약직 → 공무원 명칭 변경

광주시, 임금·복지 단계적 상향...5개구에 협조 요청

무단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6월 20일·10월 7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가 시청 내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오는 21일부터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2일 "행정 일선에서 시민과 접촉하며 민원업무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5기 때부터 출가처 요구됐으나 시청조직 내 인사 관련 부서의 반발로 묵살됐던 것으로, '낮은 곳을 우선 살피겠다'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취임 후 100여

일만에 명칭변경 등이 이뤄지게 됐다.

시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서관리 등 관련 3개 규정을 개정해 무기계약근로자 명칭을 삭제하고 공무직을 신규로 삼입해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도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무직 직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0월 현재 광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388명으로 행정보조,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13척의 신화' 40만명이 함께 했다 명랑대첩 축제 대성황...해전 재연 등 큰 호응

이순신 장군과 호남 민중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기적의 명랑대첩 승리를 기념하는 2014 명랑대첩축제가 40만명의 관광객이 몰렸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해남·진도 울돌목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해전 재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대폭 개선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과 참가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영화 '명랑'을 보고 축제장

을 찾은 관광객이 많은 탓으로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해전 재연의 규모와 완성도를 높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5~10t급 선박 100척이 참여해 규모를 키웠으며, 다양한 특수효과와 관객들의 함성 등 전쟁 승리 응원 참여 등으로 영화 이상의 감동을 전해줬다.

학생, 가족 단위 관광객 5000여명이 참여한 '명랑대첩 역사정복 원정대', 충남·경남·전남지역 대학생 200여 명이 구례에

서 출발해 울돌목에 도착한 '조선수군 재건로 탐방', 우수영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명랑대첩 역사교실', '명랑대첩 유적지 투어' 등이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또 해군 군악대와 홍보단 공연, 의장대 시연에 이어 출정식 퍼레이드에는 7척의 해군 고속정과 2척의 고속단정, 3척의 헬기 등이 동원됐으며 목포 삼학도 부두의 3500t급과 2500t급 구축함 2대와 잠수함 공개 행사, 육군 군악대 및 국악대 공연 등

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광양 전통숏볼구이축제(9~12일), 장흥 키조개축제(9~12일), 장흥 선학동 메밀꽃축제(10~12일), 여수 여자간깻벌 놀음축제(11~12일), 구례 동면제 소리축제(11~13일) 현장에도 많은 외지인들이 찾았다.

순천갈대축제에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열린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김제동, 청산도 구들장논 오너 가입

방송인이자 힐링 토크의 대명사로 유명한 김제동씨가 청산도 구들장논 오너가 됐다.

12일 원도군에 따르면 세계 1호 슬로길을 함께 걷고 싶은 명사로 초청돼 지난 10일 청산도를 방문한 김씨가 구들장논을 둘러보고 즉석에서 오너제도 가입신청서에 서명했다.

오너제도는 국가농업유산 제1호이자 국내 최초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논 휴경화를 막고 도농(都農) 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경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후원 제도다.

오너제로 참여자는 착한농부(일반회원), 으뜸농부(우수회원), 서포터스회원으로 구분되고 1개좌를 구매한 김씨에게는 농산물, 구들장논 행사 초청, 소식지 배송 등의 혜택을 준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에너젯 복합치료
- ② 에드용 레이저: 스무스빔,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제오 레이저: 켈름엑스, 다이오우드제오
- ④ 피부 미백: 루미나스원 엑셀V, 켈름엑스 루비레이저
- ⑤ 주름·흉터: 프락셀 듀얼, 울트라펄스임크로, 프렉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제너
- ⑥ 모공: 변티지, 프락셀 5종
- ⑦ 비만: 네오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